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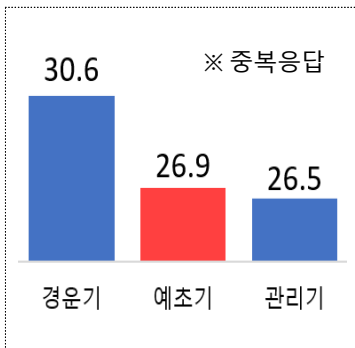
보도시점 (온라인) 2025. 9. 11.(목) 12:00
 (지면) 2025. 9. 12.(금) 조간

추석 전 벌초, 예초기 사용에 주의하세요!

- 예초기 사고의 절반은 베이거나 찢림, 작업 전 안전장비 착용 철저

- 행정안전부(장관 윤호중)는 추석을 앞두고 벌초 등으로 예초기를 사용할 경우,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.
- 예초기는 경운기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농업기계이며, 예초기와 관련된 사고 발생 비율도 10.1%에 달한다.

<전체 농업인 중 농업기계별 사용자 비율(%)>



<농기계 종류별 농업인 손상사고 발생 비율(%)>



[출처: 농업인의 업무상 손상조사 결과, 농촌진흥청]

- 특히, 9월은 여름 동안 자란 풀을 정리하거나 벌초 작업으로 예초기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, 이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도 높다.
- 예초기 사고 유형으로는 사용 중 베이거나 찢림(46.7%)이 가장 많았으며,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에 맞음(20.0%), 작업 중에 넘어지거나 떨어짐(13.3%)이 그 뒤를 이었다.
 - 주로 다치는 부위는 팔과 다리(각각 26.7%), 몸통(20.0%), 머리(13.3%) 순이다.

< 사고 유형 및 손상 부위별 예초기 사고 현황(%) >



[출처: 농업인의 업무상 손상조사 결과, 농촌진흥청]

□ 예초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.

- 작업 전에는 안면보호구 또는 보안경, 무릎보호대, 안전화, 장갑 등 신체 보호장비를 꼼꼼히 갖추고 긴 옷을 입는다.
- 예초 작업 중 돌이나 금속파편 등 이물질이 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안전날(원형날, 끈날 등)을 사용하고, 예초기는 보호 덮개를 장착하여 사용하도록 한다.

이도날 (2도날, 위험)	안전날 (원형톱날, 물체에 닿으면 팔의 관절처럼 자동으로 접히는 날, 끈날 등)		
			

[출처: 농촌진흥청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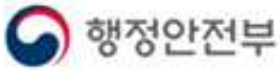
- 주변의 돌과 나뭇가지, 유리병 등 예초기 날에 부딪혀 튈 수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고, 작업 반경 15m 이내로는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한다.
- 작업 중 칼날에 이물질이 끼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예초기 전원이나 동력을 차단한 뒤 장갑을 낀 손으로 제거한다.

□ 황기연 예방정책국장은 “9월은 추석을 앞두고 벌초를 위해 예초기 사용이 크게 늘어나는 시기”라며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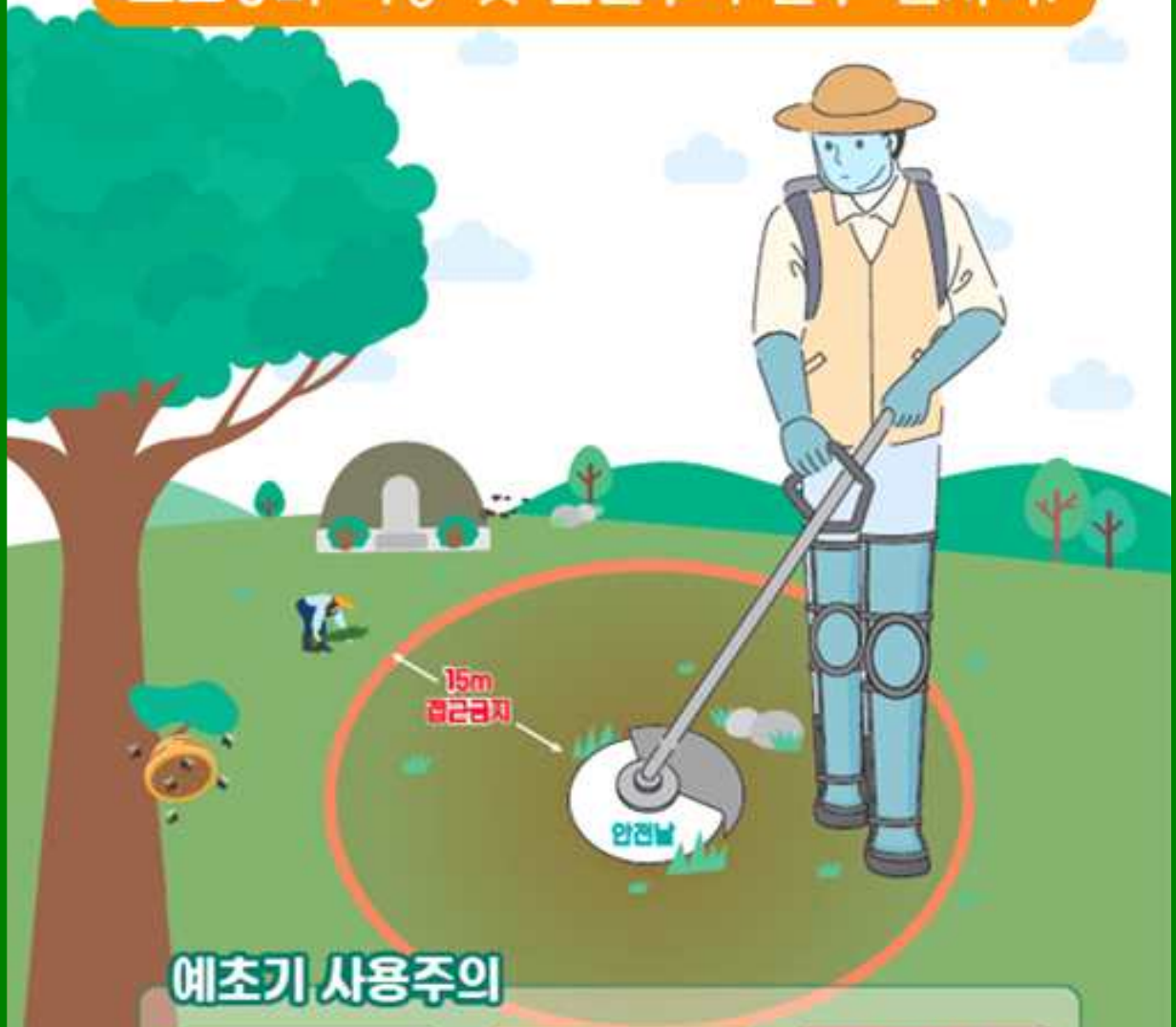
- “특히 예초기 사용 경험이 적을 경우에는 보호장비를 꼭 착용하고, 안전 수칙을 준수하며 벌초 작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”라고 당부했다.

담당 부서	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제도과	책임자	과 장	지만석 (044-205-4510)
		담당자	서기관	정인성 (044-205-4505)
담당 부서	농촌진흥청 농촌환경안전과	책임자	과 장	윤순덕 (063-238-2331)
		담당자	연구사	이민지 (063-238-4179)





“예초기”
보호장비 착용 및 안전수칙 준수 철저히!



예초기 사용주의

✓ 안전보호대, 보안경

✓ 무릎보호대, 안전화

✓ 예초기 사용시
물, 나뭇가지 조심

✓ 긴팔, 긴바지,
진동방지 장갑

✓ 작업하는 15m 이내
접근금지

✓ 밧날 이물질은 반드시
동력 차단 후 제거